

“항해를 떠나자”... ‘희망’이라는 돛대달고, ‘청춘’이라는 바다로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17일까지 기획전 ‘시리우스, 항해자의 별’展

‘불휘광인’ 기획...청년 작가·큐레이터 1:1 매칭 프로그램 예술은 세상을 향한 또다른 출구...심상의 풍경과의 소통

‘시리우스’는 큰개자리의 알파성(星)으로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 대항해 시대, 많은 항해자들은 그 별로 방향을 측정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오늘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방향을 상실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에 그저 순응하며 살아간다. 이런 가운데 청년 예술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가장 예술적인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펼쳐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은 오는 17일까지 ‘시리우스, 항해자의 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문화예술단체 ‘불휘광인’(不隳光人) 기획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술인들이 준비했다. 7명의 큐레이터와 7명의 작가가 함께하는 1:1 매칭 프로그램이다.



김관현작 '마지막의 재해석'



최윤정작 '흔들리며 나아가기'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이동구작 '힘 없는 자의 초상', 하승원작 '무기머리', 오혜성작 'Flow'



이들 청년 작가·평론가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청춘의 아픔만이 아닌 개인의 정체성, 나의 휴식 등 다양한 소재를 아우르며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김관현 작가는 자신의 예지몽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통해 본인의 세계를 표현한다. 류시원 평론가는 그의 묘한 꿈속 이야기를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전한다.

오혜성 작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임을 혜성(慧星)으로 보여준다. 홍승원 평론가는 천체의 특성을 기반으로 작가의 인류애적 관점의 사랑을 조명한다.

이동구 작가는 점점 더 심화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독특한 붓터치와 색 배열의 인물 군상으로 재현해낸다. 나지우 평론가는 관찰자 시점에 그치지 않고 현재대를 살아가

는 경험자로서 겪은 이야기를 함께 담아낸 작가에 공감한다.

최윤정 작가는 의도적으로 발달한 근육을 가진 인물로 희망·이상·욕망을 대변한다. 최시은 평론가는 고대 그리스 예술 정신처럼 단련된 신체를 통해 더 건강한 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작가의 예술적 비전을 글로 담아낸다.

최정우 작가는 '야토(Yato)'라는 인물을 통해 그의 성장과 보금자리로의 여정을 함께 하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사회가 되길 꿈꾼다. 이서진 평론가는 야토와 함께 차별의 시선을 다시 되돌아보고, 야토가 바라는 연대사회를 중심으로 평론을 작성했다.

하승원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 'creature'(크리처)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창조해 메

시지를 전달한다. 위혜영 평론가는 '크리처'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작품을 풀어낸다.

Slancer 작가는 만물의 근원인 '공간'을 다루는 'GENESIS' 시리즈 속에서 본질과 양립을 논한다. 구민주 평론가는 생(生)과 그 전후의 세계를 언급하며 순환하는 인간 삶과 세상의 진리 속 우리의 존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평한다.

박광구 광주미술협회장은 "참여 작가들의 작품으로 광주·전남 예술 수준이 빛을 발할 것이다"며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소통을 바탕으로 이들이 거대한 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시 관람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공휴일은 휴관. /최명진기자

한여름 밤 꿈같은 휴식...지친 내 삶을 어루만지다

광주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오는 19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여름밤 선선히 불어오는 합창 하모니’ 광주시립합창단은 오는 19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하반기 첫 정기연주회 ‘여름밤의 휴식’을 연다.

공연 객원지휘자로는 정현관 미국 샌디에이고 캔트리아모어 합창단 음악감독이 나선다.

독일과 이탈리아 등 해외 콩쿠르에서 수상한 첼리스트 김황균의 첼로와 도경한 광주시립합창단 기악부 상임단원의 모듬북 협연이 이날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영국 작곡가 프레더릭 딜리얼스가 합창을 위해 작곡한 무반주 6성부 ‘To be sun

g of a summer night on the water’로 서막을 장식한다. 여름밤 펼쳐지는 물 위의 모습을 시작이고 꿈같은 분위기로 표현한 곡이다.

다음 무대로 아름다운 우리 시가 녹아있는 한국가곡 ‘별’, ‘내 마음’, ‘가고파’를 들려준다. 이어 첼리스트 김황균이 사랑의 세레나데 ‘내 마음의 작은 별’과 자연의 평화로움을 담은 ‘양들은 한 가로이 풀을 뜯고’를 아름다운 첼로 선율로 펼쳐낸다.

공연 후반부는 여성합창과 남성합창 무대로 각각 꾸며진다. 부드러운 여성합창으로 ‘두껍이’, ‘살랑살랑 초록바다’, ‘노래는 즐겁다’ 무대



첼로_김황균

모듬북_도경한

를 선사하며,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오페라 리골레토 중 아리아 ‘여자의 마음’이 섬세하고 강렬한 남성합창으로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합창단

이날 마지막 무대로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황금기였던 1970-80년대 대표곡 ‘돌아와요 부산항’ 등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로 관객 참여를 유도하며, 한국민요 ‘개구리소리’, ‘거짓부리’, ‘아리랑’이 흥겨운 모듬북 합주와 어우러지며 펼쳐질 예정이다.

광주시립합창단 관계자는 “무더위로 지친 일상 ‘여름밤의 휴식’ 같은 합창 공연을 통해 나란을 위한 여유를 찾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은 전석 1만원으로 4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